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인의 영어 복합절 산출 시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 변화

- 'When', 'If', 'Because' 부사절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윤 희

2019년 8월

한국인의 영어 복합절 산출시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 변화

- When, If, Because 부사절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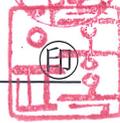
지도교수 윤 홍 옥

김 윤 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김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기석 
위 원 양영각 
위 원 윤홍옥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6월

The Order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of
English Complex Sentences Produced by
Korean–English Learners: Focusing on *When*,
IF and *Because* Clauses

Kim, Yunhee
(Supervised by Professor Yun, Hongoa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August 2019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여러 나라의 부사절.....	4
2.2 영어 부사절.....	7
2.2.1 부사절의 구분.....	7
2.2.2 의미적 분류.....	9
2.2.3 부사절의 위치.....	9
2.2.3.1 접속사 별 위치 차이.....	12
2.2.3.1.1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when</i>	13
2.2.3.1.2 조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if</i>	14
2.2.3.1.3 원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because</i>	16
2.3 한국어 부사절.....	17
2.4 언어전이 현상(Language transfer).....	20
2.4.1 중간언어(Interlanguage).....	22
2.5 관련주제 선행 연구.....	25
III. 연구 방법.....	30
3.1 연구 대상.....	30
3.2 연구 설계.....	30
3.3 연구 절차.....	33
IV. 연구 분석 및 결과.....	35
4.1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부사절 위치 비율.....	37
V. 논의.....	43

VI. 결론.....	48
참고문헌.....	50
부록.....	53
ABSTRACT.....	63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교류하는 지식 영역이 커지며 의사소통과 전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하 EFL) 환경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에게 영어는 문화·언어적으로 매우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된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구절 범주(phrasal categories)가 커질수록 영어 습득 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오류 및 차이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국어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전이 현상(transfer effect)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전이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L2 언어와 모국어 사이의 대비분석이 필요하다. 어순은 그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어순의 오류는 적지 않으며, 특히 쓰기·말하기 등의 언어지식이 요구 될 경우 문장요소의 배열순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비교하고 이들의 언어적 유사점 및 차이점을 찾아 영어 교육에서 모국어의 전이현상을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를 학습할 시 단어, 구를 넘어 복잡한 절 단위에서 범하는 빈번한 오류 및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을 토대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구절 차이 및 양상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활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복합문 학습 시 다른 학습 범위들 중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어순을 낫설어하며 습득하기 어려워한다(조인정, 2005). 예를 들어,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복합문 사용 시 아래 예문 접속 부사절이 선치하는 (1) ~ (3)과 같은 형태의 문장을 접속 부사절이 후치하는 (4) ~ (6)과 같은 형태의 문장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한국인 EFL 학습

자들이 영어 부사절과 주절 사용 시 가지는 공통적인 패턴이라고 여겨진다.

- (1) When my father arrived, my mother was working in the garden.
- (2) If you lose the game, you would not have the prize.
- (3) Because it poured today, we could not go to school.
- (4) My mother was working in the garden when my father arrived.
- (5) You wouldn't have the prize if you lose the game.
- (6) We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t poured today.

본 연구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로 복합 문장을 작성할 때, 부사절이 주절 앞에 위치하는 어순 구조를 부사절을 주절 뒤에 위치시키는 구조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인 EFL 학습자가 ‘부사절+주절’ 또는 ‘주절+부사절’의 언어 구조를 가진 영어를 학습할 때, 부사절이 주절을 대부분 선행하는 언어 구조를 가진 모국어(한국어)의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 EFL 학습자와 영어 모국어 화자의 서술방식이 어느 정도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영어 모국어 화자의 서술 행위는 기존의 연구의 결과에 기반을 두었고,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 행위는 실험 연구를 통해 새롭게 획득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가 높은 즉, 영어에 노출이 많고 해당 언어에 익숙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복합 구문 영작 시 영어 능숙도가 낮은 한국인 학습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일 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현재 영어 화자와 한국인 EFL 학습자의 부사절 습득 및 사용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부사절과 그 중 대표적으로 영어 부사절의 위치 변화 양상 및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리고 한국어 부사절의 특징 및 위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인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사용 시 부사절 위치 변화 양상에 대한 실험에 대해 살펴본다. 실험의 가설과 피험자 설정, 실험 설계 및 절차 등의 전반적인 단계를 설명하고 통계 분석을 통한 결과를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종합적

으로 기술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이 예측하는 가설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when', 'if', 'because'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복합 문장을 생성할 때,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경향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경향이 높을 것인가?

둘째, 영어 복합문장에서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 위치와 관련한 양상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접속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관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셋째, 영어 복합문장을 구성할 때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를 위치시키는 양상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proficiency)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여러 나라의 부사절

언어는 각 나라, 지역 별로 다르며 언어의 체계는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 학습자는 L2 언어(Second Language) 학습을 위해 L1 언어(First Language)와 L2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차이는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구조적, 형태적, 의미적 관점 등의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속절과 주절 통합을 통해 구현되는 복합절의 학습은 더욱 그러하다.

이 논문에서 연구할 언어 대상은 영어와 한국어이다. 한국인 EFL 학습자가 영어복합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는데 있어 아래 예문(5a-c)과 같은 현상이 주로 관찰된다.

- (5) a. When Jina played the piano, her friend called her.

지나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 b. The girl felt sad because she didn't want to leave there.

그 여자애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다.

- c. I could go to the office on time if she brought the car.

그녀가 차를 가져온다면 나는 사무실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을 텐데.

위의 예문 (5a-c)에서처럼 한국인 EFL 학습자는 영어를 해석 과정에서 영어 부사절이 실제로 주절 앞에서 위치했건 혹은 주절 뒤에서 위치했건 상관없이, 영어 문장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에서는 부사절을 항상 주절 앞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부사절과 주절을 배열시키는데 한국어와 영어 간에 언어 유형적 차이가 존재해 보인다.

Diessel(2001)은 40개 언어의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 위치에 대해 연구를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는 두 가지 주요한 교차 언어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부사절이 주절을 앞서거나 뒤따르는 패턴을 유지하는 언어가 있고, 두 번째로, 부사절이 일반적으로 주절을 선행하는 패턴을 가진 언어이다. 그는 논문에서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를 결정하는 요인은 해당 언어에서 종속접속사가 문장 내에 어디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사절이 문미 종속접속사를 가지는 언어에서 부사절은 주절 앞에 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부사절이 문두 종속접속사를 가지는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부사절 구조가 SOV 언어¹⁾에서만 등장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후행되는 부사절 구조는 SVO 언어²⁾와 SOV언어 모두에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표 1>은 구성 요소 순서에 따른 부사절의 위치 양상을 보여준다.

<표 1> 구성 요소에 따른 부사절 위치 패턴(Diessel, 2001:442)

어순	VO	OV	VO/OV	전체
주절 선행	-	17	-	17
주절 선행 및 후행	15	4	3	22
주절 후행	-	1	-	1
전체	15	22	3	40

위 <표 1>의 언어유형별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 분포의 차이는 예문 (5a-c)에서 관찰되는 한국어-영어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한다. VO 유형에 속하는 영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의 앞 혹은 뒤에 등장하나, OV 구조에 속하는 한국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한다. 따라서 영어에서 부사절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에선 부사절은 늘 앞에 오기 마련이다.

1) SOV languages: 문장 어순이 SOV(주어+목적어+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언어로 대표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등이 이에 속한다.
 2) SVO languages: 문장 어순이 SVO(주어+동사+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언어로 대표적으로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이 이에 속한다.

예측컨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 복합문을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 혹은 영어 복합문을 영어로 작문할 때, 부사절의 위치는 예문(5a-c)에서와 같이 항상 주절을 선행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한국어 EFL 학습자가 가지는 모국어가 전이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부사절 위치 양상과 특히 영어와 한국어의 주절 부사절 위치 양상을 비교하며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Diessel(2001)은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의 기준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경식 ADV-S/VP 언어(Rigid ADV-S/VP languages)로 티벳어와 일본어가 이 범주에 해당되며, 이 범주의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항상 주절을 선행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사절은 무겁기 때문에 그들의 상위 조항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다(Haspelmath, 1993:375). 두 번째, 연식 ADV-S/VP 언어(Non-rigid ADV-S/VP languages)로 한국어와 터키어가 이에 속한다. 이 범주의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일반적으로 주절을 선행하지만 후행하기도 한다. 세 번째, 독일어, 영어, 아랍어들이 속하는 유연식 ADV-S/VP + S/VP-ADV 언어(Flexible ADV-S/VP + S/VP-ADV languages)에서는 부사절은 주절을 선행하기도 하고 또한 후행하기도 한다. 부사절은 쉽게 주절을 따르거나 앞서며 심지어는 주절 중간에 위치할 때도 있다(Glinert, 1989:338). 네 번째, 혼합식 ADV-S/VP + S/VP-ADV 언어(Mixed ADV-S/VP + S/VP-ADV languages)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 또는 후행 하지만 부사절의 의미 유형에 따라 항상 주절을 선행하거나 후행한다. 바붕고어, 와리어 등이 이에 속한다. 다섯 번째, 연식 S/VP-ADV 언어(Non-rigid S/VP-ADV languages)는 대개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행하기도 한다. 왕강구루어가 그 예이다. 여섯 번째, 경식 S/VP-ADV 언어(Rigid S/VP-ADV languages)는 항상 부사절은 주절을 후행한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한국어는 주로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연식 ADV-S/VP언어에 해당된다. 반면에 영어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 및 후행하는 유연식 ADV-S/VP 언어에 속한다. 부사절 위치의 비균등적 분포는 이 두 언어의 대비적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2 영어 부사절

2.2.1 부사절의 구분

영어의 부사절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영어 부사절에 쓰이는 종속접속사 외 다른 접속사를 사용하는 종속절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 종속절에는 부사절을 포함한 다른 두 가지 하위절이 있다. 그것들은 보어절과 관계절 그리고 등위절이다. 보어절은 술어의 핵심 변수로 기능하며, 일반적으로 주절은 의무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그에 반해, 부사절은 부사적(adverbial) 또는 부수적(ad-sentential) 수식어로 기능하는 부가어(adjuncts)³⁾이다 (Thompson & Longrace, 1985:171). 부가어는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사절은 항상 생략할 수 있다. 더욱이 부사절은 주절과 부사절 사이의 특정한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적 종속접속사에 의해 표시되지만 보어절은 종종 표시되지 않거나 보문소(complementizers)⁴⁾로 나타난다. 관계절은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다. 단, 부사절은 관련 주절이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반면에 관계절은 명사 또는 명사구를 수식 한다 (Keenan 1985). 또한 부사절은 부사적 종속접속사에 의해 표시되지만 관계절에는 핵심명사(head noun)과 관련된 (대)명사 또는 공백(gap)으로 표시 된다 (Lehmann 1984). 이와 다르게 등위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와 달리 새로운 기준이 있다: 1) 부사절에서는 주어진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등위절을 포함한 독립절은 전경 정보(foreground 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Tomlin, 1985). 2) 등위절은 독립적인 언어 행위이지만 부사절에는 발화의 힘이 결여되어 있다 (Lehmann, 1988).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명확한 구분을 위해 사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Diessel(2001)은 부사절과 등위절의 구별을 위해 부사절 특징의 기준을 세웠다. 첫 번째로, 부사절은 후방조용사(cataphoric pronouns)를 포함할 수 있지만, 등위절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 (6)~(7)로 설명할 수 있다.

3) 부가어 : 'although'. 'when'. 'before'. 'after'. 'because' 등이 이끄는 점에 해당하는 문법 구성 성분을 지칭 한다.

4) 보문소 : 'that'. 'whether'. 'if'. 'for' 등이 이끄는 점 혹은 구에 해당하는 문법 구성 성분을 지칭한다.

(6) When she came to Korea, Jina met Chris. (부사절)

(7) *She came to Korea, and Jina met Chris. (등위절)

두 번째, 여러 언어의 부사절은 주절에 다양한 위치에 발생할 수 있지만, 등위절의 위치는 고정적이다. 아래의 예문 (9)~(14)로 부사절과 등위절의 위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9)~(11)은 부사절의 예에 해당되며, (12)~(14)는 등위절의 예에 해당된다.

(9) Chris knew that Jina came to Korea [before she called].

(10) [Before she called] Chris knew that Jina came to Korea.

(11) Chris knew,[before she called], that Jina came to Korea. (부사절)

(12) Chris knew that Jina came to Korea and she called.

(13) *[And she called] Chris knew that Jina came to Korea.

(14) *Chris knew,[and she called], that Jina came to Korea. (등위절)

세 번째, 부사절은 부가의문문으로 발생할 수 없지만 등위문에서는 발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 (15)과 (16)으로 설명된다.

(15) *She will call you if she is here, isn't she? (부사절)

(16) She will call you, but she isn't here, is she? (등위절)

마지막으로, 등위절은 생략(gapping)을 허용하는 반면, 부사절에서는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아래의 예문 (17)과 (18)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17) *Jackson played the piano when Chris () the guitar. (부사절)

(18) Jackson played the piano and Chris () the guitar. (등위절)

이를 통해 보어절, 관계절 그리고 등위절은 부사절과 구별이 되며, 따라서 부사절과 나머지 종속절 그리고 등위절을 구분하는 것이 유의미 하다.

2.2.2 의미적 분류

Quirk et al.(1985)는 영어의 복합문에서 부사절은 그것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19)에서처럼 여러 가지 의미적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부사절의 정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였다.

- (19) a. 시간 부사절 : 연결된 두 문장의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예, When she read the book for kids, they fell asleep.)
- b. 원인 부사절 : 주절에 관련된 사건의 원인을 나타낸다.
(예, I like him because he is such a sweet guy.)
- c. 조건 부사절 : 주절에 명시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예, Let's go play soccer if it stops raining.)
- d. 결과 부사절 : 주절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생긴 결과를 말한다.
(예, After he got a car accident, he never drives.)
- e. 목적 부사절 : 주절에서 나타난 사건의 목적을 제공한다.
(예, They moved to the city so that their children could get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부사절은 자신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유형이 결정된다. 본 논문은 부사절의 종속접속사 중 'when' 접속사가 이끄는 시간 부사절, 'if' 접속사가 이끄는 조건 부사절 그리고 'because' 접속사가 이끄는 원인 부사절을 탐색하여, 이들 영어 복합문 내에서 부사절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2.2.3 부사절의 위치

Diessel(2008)에 따르면 SOV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한다.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언어들은 SVO 언어에 해당된다. 영어의 경우 SVO 언어에 속하며 부사적 접속사가 부사절 앞에 위치하여 부사절을 이끌며, 한국어의 경우 주절을 선행하는 부사절을 가지는 SOV 언어에 속한다.

부사절 의미별 위치 경향에 대한 Diessel(2001)의 브라운 코퍼스 (<http://www ldc.upenn.edu/>)⁵⁾ 기반 연구는 다섯 가지 부사절로 이루어지며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Diessel(2001)은 브라운 코퍼스(Brown Corpus)에 등장하는 시간, 조건, 원인, 결과, 목적에 해당하는 약 4000개의 영어 부사절을 검색하여, 이들 부사절의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 관계를 <표 2>와 같이 보고하였다.

<표 2> 브라운 코퍼스에 나타난 종속접속사 의미에 따른 부사절 위치 분포

	시간	조건	원인	결과	목적
주절 선행	361(18.5)	435(53.0)	30(5.5)	-(0)	1(1.0)
주절 후행	1604(81.5)	387(47.0)	511(94.5)	277(100)	84(99.0)
전체 (%)	1935(100)	822(100)	541(100)	277(100)	85(100)

(단위: 개)

이들 중 일부는 다양한 유형의 부사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종속접속사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다(Quick et al, 1985), Diessel(2001)은 연구의 목적상 접속사의 기본 의미가 부사절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에서는 대부분 부사절은 주절을 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면 시간 부사절은 주절을 81.5%로 후행하고, 조건 부사절은 주절을 비슷하게 선행 및 후행하고(47%), 원인(94.5%), 결과(100%) 그리고 목적(99%) 부사절은 대부분 주절을 후행한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비율은 다르지만 SOV 그룹에 속하는 영어 부사절이 흔히 주절을 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Ford & Thompson, 1986; Ramsay, 1987; Diessel, 1996).

눈에 띄는 양상은 시간, 원인, 결과, 목적의 부사절은 주절을 후행하는 양상이 매우 지배적인 반면 조건 부사절에서 부사절이 주절에 후행하는 빈도율이 현저

5) 브라운 코퍼스 :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Henry Kuchera와 W. Nelson Francis에 의 1963년부터 2년간에 걸쳐 100만 어절로 편집된 첫 말뭉치(corpus)를 말하며 이를 시초로 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구축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1억 어절 이상의 영국 국가 말뭉치(BNC : British National Corpus)가 구축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접속사 의미별로 부사절의 주절 선행 및 후행의 비율이 달라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Diessel(2005)은 영어 복합문은 하나의 이유로 부사절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종속접속사의 의미적 유형과 세 가지의 경쟁 동기(competing motivations)⁶⁾, 즉, 정보 처리(processing), 담화적 화용론(discours pragmatics) 그리고 의미론(semantics)적 동기에 의해서 복합문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의 기능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가 나뉜다. 'if'로 표시된 조건 부사절, 'when', 'while', 'after', 'before' 등으로 표시된 시간 부사절, 'because', 'since', 'as'로 표시된 원인 부사절로 나누었을 때, 조건 부사절이 시간 부사절 보다 주절을 더 자주 선행했다. 두 번째로 시간 부사절이 선행했고 마지막으로 원인 부사절이 선행을 했다. 이와 같이 부사절의 위치 패턴은 그들의 의미에 따라 중요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본다(Diessel, 2005).

두 번째로, 단어와 구가 선형(linear)구조로 배열되어 순서대로 정보 처리가 된다는 Hawkins(1990)의 파싱 이론(parsing theory)이다. 그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할 시, 부사절 처리 후 주절이 처리될 때 까지 부사절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에 반해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면 한 번에 한 문장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 복합문은 좀 더 쉽게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asow(1997)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면 초기 부사절(initial-adverbial clauses)은 적어도 두 개의 절로 구성된 구조를 만들겠다는 화자의 담화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화자는 포괄적인 구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부사절이 주절 뒤에 이어지는 경우, 주절과 부사절 사이의 연계성은 주절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은 연속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 화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부사절 후행은 화자와 청자 관점 모두에서 선호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 부사절은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Chafe, 1984; Thompson, 1987; Ford, 1993).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대화의 정보 흐름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부사절이 주절

6) Diessel(2005)는 영어의 부사절은 세 가지 동기(motivations)에 의해 위치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 정보 처리(processing), 담화적 화용론(discourse pragmatics), 의미론(semantics)

을 따를 경우 주절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영어 복합문에서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구조 즉, ‘주절 + 부사절’ 구조를 선호한다.

네 번째는 의미론적(semantics)으로 도상성 이론(iconicity principle)을 따른다. 이는 시간적 순서대로 절을 배경하는 특징으로 시간 부사절에 영향을 끼친다. 선형 순서가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듯 시간 순서 배열에도 큰 기능을 한다. 주절보다 전에 나타난 사건은 주절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주절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주절을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상성 이론은 시간 순서에 맞추어 어순을 배열할수록 정보처리 과정이 쉽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부사절 위치에 대한 여러 요소 이외에도 영어 복합문에서 일반적으로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Saito와 Fikui(1998)은 부사절은 핵 매개 변항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즉, 부사절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핵어를 따라 위치가 변함을 의미한다. 영어에서는 부사절이 문장의 핵어를 포함하는 주절을 따라 주절을 후행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본어와 한국어에서는 주절 앞에 부사절이 위치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중에서 ‘if’, ‘because’, ‘when’에 집중하여 부사절 위치에 따른 정보구조와 의미구조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2.2.3.1 접속사 별 위치 차이

이 논문에서 다루는 부사절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시간 부사절을 나타내는 ‘when’, 조건 부사절을 나타내는 ‘if’, 원인 부사절을 나타내는 ‘because’ 이다. 영어 복합문에서 ‘when’, ‘if’, ‘because’ 가 이끄는 각 부사절 별 위치 차이 양상과 원인을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자.

2.2.3.1.1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

Ramsay(1987), Diessel(1996) 그리고 Ford(1993)에 따르면 시간 부사절이 주절

을 후행하는 비율이 선행하는 비율에 2배에 가깝다고 보고되었다. <표 3>에서 영어의 시간 부사절의 34%만이 선행하고 66%는 후행한다고 나타난다. 즉 시간 부사절의 경우, 좀 더 전형적인 어순은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표 3> 영어 부사절의 위치 분포(Ford, 1993:24)

	조건	시간	원인	계
선행	26(59.1%)	21(34.4%)	0(0%)	47(26.1%)
후행	18(40.9%)	40(65.6%)	75(100%)	133(73.9%)
총	44	61	75	180

(단위: 개)

Diessel에 따르면 시간 부사절의 어순에 대해서 도상성 이론이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도상성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부사절의 위치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영어 복합문에서 요소들이 배치되는 순서는 시간 순서를 따르는 경향을 가진다는 말이다(Haiman, 1985). 예를 들면, ‘after’ 는 주절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여 주절을 선행하며 (예문 20a 참조), ‘before’ 는 주절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며 주절을 뒤따르는 경향을 가진다 (예문 20b 참조). 이상과 같은 Diessel의 제안은 시간 부사절에서도 주절과 부사절의 어순에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그 어순의 전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 a. After the rain stopped, it got warm and muggy.

(시간의 흐름) ----->

b. The sky has gone really dark before the storm started.

(시간의 흐름) ----->

그러나 after 혹은 before 시간 접속사가 이끄는 시간 부사절과 when 접속사가 이끄는 시간 부사절은 경우가 좀 다르다. 종속 접속사 ‘when’은 시간 부사절의

주로 문두에 위치하며 주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after', 'before'와 달리 when 접속사의 경우는 주절과 부사절의 사건 시간의 관계에 따라 위치가 바뀔 수 있음을 예문 (21a-b)을 통해 알 수 있다.

- (21) a. When Haley came home, her father was working in the garden.
b. I was glad when my friends visited my place for celebrating my birth day.

그러나 주절과 부사절의 시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when-절을 주절보다 이전의 사건을 나타내는 after-절과 비교했을 때 when-절은 after-절 보다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높다(오치성, 2016). 따라서 when-시간 부사절의 위치는 도상성 뿐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인해 위치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when' 과 같은 뜻을 가지는 접속사 'as' 는 시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유 접속사, 전치사, 부사 등 여러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2.2.3.1.2 조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종속 접속사 'if'는 조건 부사절에 포함되며 'if' 는 조건 표시 접속사로 가장 흔히 사용된다. if-조건 부사절은 조건(condition)으로 인식되는 진술(statement)을 포함하며 그 조건이 성사되었을 때 결과절(result clauses)이 일어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22) a. If Laura leaves now, she should arrive at the airport in time to catch her flight.
b. If you say 'yes', I will be happy more than any other time.

위의 예문에서 알다시피, 조건절의 전개되는 내용은 if-절의 조건이 충족되면 주절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if-절은 미래 불확실한 상황

을 포함하는데, 이 미래 상황은 전적으로 현재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가상의 진술이다. 이런 점에서 조건 부사절은 조건, 즉 불확실한 사건을 먼저 조건 부사절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이 뒤를 따르는 경향이 주요하다 (Diessel,2001). 이는 <표 3>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표 3> Ford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조건 부사절 총 44개의 문항 중 26개(59.1%)가 주절을 선행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조건 부사절 + 주절’에 대한 강한 선호도는 Diessel(2005)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표 4>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는 대화, 소설, 논문과 같은 세 가지 장르에서 부사절 선행도를 분석하였는데, 조건 부사절의 70.7%가 주절을 선행 하였다. 그리고 이 분포는 대화(conversation)에서 가장 높은 선행 비율을 나타낸다.

<표 4> 여러 유형에서 각 부사절의 선행 비율

	조건	시간	원인
대화	72.9%	41.5%	1.1%
소설	67.0%	34.1%	10.2%
논문	72.2%	34.2%	27.1%
평균	70.7%	36.6%	12.8%

조건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할 경우, 가설의 의미를 가진 주절을 청자가 사실 진술로 착각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재해석은 문장 해석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건 부사절은 대부분 주절 선행이 선호된다고 Diessel(2005)은 주장한다. 따라서 조건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경우엔, 가설 조건 부사절이 사실 진술로 착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가정법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문이 다음 (23)에 나타난다.

(23) a. I wouldn't be sick if I were, excuse me,... pregnant.
(Diessel,2005)

b. We could travel more if we had a car.

2.2.3.1.3 원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

영어에서 가장 흔한 원인 종속 접속사는 'because'이다. 시간 및 조건 부사절과 달리 원인 부사절은 주로 주절을 후행한다. 원인 부사절은 일반적으로 주절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데 이용된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24) a. Peter lied to her because he didn't want her to know the truth.
b. I was so tired because I couldn't sleep much.

(24)의 부사절들은 주절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언어의 통사적 특성은 우분지(right-branching)⁷⁾ 파싱(parsing)이다 (Diessel, 2005). 다른 의미적 형태의 부사절, 특히 시간 부사절과 대조적으로, 원인 부사절은 주로 균형된 절로 표현된다. 즉, 주절에서 제시된 주어와 동사의 생략 형태가 부사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Diessel, 2005).

또한 원인 부사절은 주절을 후행하는 강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표 3>의 데이터에서 원인 부사절은 주절 선행이 0%, 주절 후행이 100%였던 점을 참고하면 원인 부사절의 순서 위치 양상이 쉽게 파악된다. 그에 반해 'because'와 같은 뜻을 가지는 'since'와 'as'가 부사절을 이끌었을 경우 대부분 주절을 선행했다 (Diessel, 2011).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표현을 제외한 'since'와 'as'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when'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은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이 선행하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으며(Ramsay, Diessel, Ford 연구 참조), 'if'가 이끄는 조건 부사절 또한 다른 부사절과 비교했을 때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because'가 이끄는 원인 부사절은 우분지의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시간 및 조건 부사절에 반해 주로 주절을 후행한다.

7) 서술문 앞(문두)에 수식어구가 붙는 특성으로 SVO언어의 특징 중 하나이며 영어가 이에 속한다.

2.3 한국어 부사절

Diessel(2001)에 따르면 한국어 부사절은 말라얄람어(인도 서남부에서 사용되는 소수 언어)나 터키어와 같은 연식 ADV-S/VP 언어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부사절은 대부분 주절을 선행하며 접속사가 부사절의 문미에 위치하는 좌분지(left-branching)⁸⁾ 언어에 속하며 후핵어(head-final language)의 특징을 가지는 언어이다. 영어의 부사절은 경쟁 동기(competing motivations)에 의해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만 한국어는 오직 하나의 위치 패턴(부사절+주절)⁹⁾을 가지기 때문에 앞서 영어 부사절에서 언급한 경쟁 동기에 의해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어 복문의 체계는 크게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나눌 수 있다. 내포문은 하나의 절이 문장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를 말하며 접속문은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을 때를 말한다.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나뉘는데 이때 부사절은 종속 접속문에 속한다. 이때 선행절은 후행절을 수식한다 (남기심, 1985). 즉, 선행절은 부사절, 후행절은 주절을 뜻한다.

<표 5> 한국어 복문의 구조

한국어 복문 구조	내포문	
	접속문	대등 접속문
		종속 접속문

한국어 복문의 구조는 대부분 ‘부사절 + 주절’로 구성되어진다. 한국어 부사절의 논의에 앞서 우선 한국어의 부사형 어미를 살펴보자. 한국어 어미 체계에서 부사형의 어미 위치는 문장을 종결짓는 종결어미와 절과 절을 묶는 연결어미가 있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미의 방식이 종속적이냐 대등적이냐에 따라 종

8) 한국어는 서술문 끝(문미)에 수식어가 붙는 좌분지(left-branching)언어이며 SOV언어에 속한다.
 9) 한국어는 조사(postposition particle, -은, -는, -이, -가, -를, -에서 등)로 인해 의미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의 위치가 바뀌어도 언어 전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언어에서 기본 어순이 존재한다. 기본 어순이란 언어 내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어순을 뜻하며 즉, 이는 무표적 어순이라 할 수 있다(김승렬, 1987).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SOV이며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한다는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속적 연결어미와 대등적 연결어미로 나뉜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절을 이끌고 대등적 어미는 대등절을 이끈다(남기심·고영근, 1993).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두는 어미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한국어 어미 구성은 <표 6>에 나타난다.

<표 6> 한국어 어미 구성(남기심·고영근, 1993)

한국어 어미 구성	종결어미	평서형(-다), 의문형(-느냐/냐), 명령형(-라), 청유형(-자)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고, -며 ...	
		종속적 연결어미	명사형 어미	-음, -기
			관형사형 어미	-은, -는
			부사형 어미	-니까, -면,
보조적 연결어미	-아, -게, -지, -고			

한국어는 어미에 따라 절의 특징과 내용이 달라진다. 한국어의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에 의해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사형의 의미는 시간, 조건, 원인으로 각각의 부사형은 아래의 어미들을 가진다.

(25) 시간 : -고, -(으)며, -으(면서), -어/아, -(으)르때, -자,....

(예문) 나는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뛰어 갔다.

(26) 조건 : -(으)면, -거든, -아/어야,.....

(예문) 니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27) 원인 :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예문)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다.

(서정수, 1996; 이익섭·이상억·채완, 1997)

한국어 복합문은 이러한 부사형 어미를 부사절 문미에 위치시키며 따라서 SOV언어에 속한다. 영어 복합문에서도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의 언어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듯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핵어의 변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부사절과 주절의 구조를 보여준다.

(28) When Jina played the piano, her friend called her.

(종속접속사) 종속절 주절

(29) Her friend called Jina when she played the piano.

주절 (종속접속사) 종속절

(30) Jina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종속절 (종속접속사) 주절

위에 제시된 영어 복합문 (28)과 (29)는 아래 (31)로 나타난다.

(31) 부사절 : 종속접속사 + 종속절

하지만 한국어 복합문 (30)은 아래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부사절 : 종속절 + 종속접속사

이와 같이 영어는 종속접속사가 항상 부사절의 앞에 위치하는 선행어 (head-initial language) 구조인 반면, 한국어는 종속접속사가 항상 부사절의 끝에 위치하는 후행어(head-final language) 구조이다.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에서 공통 점을 찾을 수 있을지라도 부사절의 핵어 역할을 하는 종속접속사의 위치가 다르다는 큰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영어와는 달리 ‘주절 + 부사절’의 구조는 한국어에서 발견하기 힘든 구조이며 이는 충분히 한국인 EFL 학습자가

영어 작문 시 ‘주절 + 부사절’ 구조 보다 ‘부사절 + 주절’ 의 구조를 더 자주 사용할 경향이 높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2.4 언어전이 현상(Language transfer)

L2 학습에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 및 차이는 학습자의 언어(learner language)를 반영하며 이것이 가진 구조는 학습자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학습하고자 하는 L2가 어떤 과정을 통해 습득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L2를 학습 시 가지는 오류가 대단히 중요하다(Coder, 1981).

학습자가 L2를 학습하면서 직면하는 오류 및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언어 전이 현상(language transfer)이 있다. 전이 현상은 L1의 습관, 지식 등이 L2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과거 언어 경험(L1의 경험)이 외국어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의 특징은 L2 습득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L1과 L2가 같은 문화권 이라면 전이 현상은 L2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에 반해 다른 문화권 이라면 언어 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Carroll, 1968).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회피(avoidance)이다. 회피란 모국어와 L2언어의 특정 언어 항목의 구조나 문법이 차이를 가질 때 L2언어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Shachter(1974)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페르시아인, 아랍인, 중국인 및 일본인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학생을 대상으로 관계대명사에 관한 오류를 분석 결과, 관계대명사의 언어구조가 모국어에 존재하는 페르시아인과 아랍인은 오류가 많았지만 관계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모국어를 가지는 중국인과 일본인은 오류가 적었다. 그러나 총 발화수를 참고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인과 일본인의 발화수가 가장 적었다. 즉, 중국어와 일본어 화자는 관계대명사절 사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오류가 적었다는 결론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도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 할 시 가지게 되는 모국어 전이 현상의 일종 중 하나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관심 영역인 영어의 어순은 한국어 복합문에서도 나타나는 어

순 (부사절 + 주절)으로 한국어는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전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김유진, 2008), 결과적으로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는 같아도 핵어인 종속접속사의 위치가 달라 오류를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습득에 어려움을 갖고 특히 어순 배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미 모국어로 한국어를 습득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언어구조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첫 번째로,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 차이, 두 번째로, 종속접속사의 위치 인식을 위한 정보처리 과정이다. 이 차이점들은 영어 복합문 인지 시 생기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Prator(1967)는 외국어 학습 어려움을 난이도 단계 순서인 난이도 모형(hierarchy of difficulties)으로 재구성 하였다. 난이도 모형은 언어간 외국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한 모형으로 0단계(transfer), 1단계(coalescence), 2단계(under differentiation), 3단계(reinterpretation), 4단계(over differentiation), 5단계(split)까지 총 6개의 레벨을 포함한다. 0단계는 두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나 대비가 없고 학습자는 소리, 구조 또는 어휘 항목을 모국어에서 대상 언어로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ㅅ’ 와 영어의 /s/가 이 단계에 해당되는 한 쌍이다. 1단계는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 언어에서는 한 항목으로 병합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ㅂ’ 와 ‘ㄹ’ 는 종종 영어 화자에 의해 ‘p’ 소리로 해석된다. 또 다른 예로, 영어의 ‘his’ 와 ‘her’ 는 스페인어에서 ‘su’ 하나로 사용된다. 2단계는 목표 언어에 없는 모국어 항목이며 학습자는 그 모국어 항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허’ 는 영어로 정확히 표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Her’ , ‘Huh’ , ‘Heo’ 그리고 ‘Hur’ 등 여러 방법으로 표기하지만 영어 화자들이 올바르게 발음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3단계는 모국어 속에 존재하는 항목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다른 분포를 보이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성문 폐쇄음(glottal stops)는 한국어에서 감탄사 소리들의 일부 변형에만 존재하는 반면 영어에서 성문 폐쇄음[ʔ]은 많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때 한국인들이 모국어에서도 그러한 소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 단계는 4단계로 간주 될 수도 있다. 4단계는 모국어 항목과 유사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항목을 학습자가 반드시 배워야하는 단계 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거꾸

로된 ‘r’ (/r/) 소리는 한국인 EFL 학습자에게 생략되거나 /l/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5단계는 모국어에서 하나의 항목이 학습 언어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항목이 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d₃/, /z/ 그리고 /ʒ/는 한국어에서 ‘ㅈ’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부사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5단계 분리(split)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부사절은 하나의 위치 선택을 가지고 있는 반면 L2언어인 영어의 부사절은 주절 선행 및 후행으로 두 가지 선택을 가질 때 학습자들이 이를 자신의 언어 구조 방식에 대입하여 영어로 출력하기 까지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L1(한국어)식의 언어 사고 방식이 L2(영어)식의 언어 사고 방식으로 전환되어 완벽한 영어능력을 가지기 전에는 학습자는 제3의 중간언어(interlanguage)을 사용하는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중간언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L2언어식의 표현 방법과 문법 등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L2 학습의 방법 중 하나이다.

2.4.1 중간 언어(interlanguage)

L1의 언어 사고방식이 L2의 언어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 완벽한 영어능력을 가지기 전에는 학습자는 제3의 중간언어(interlanguage)를 사용하는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중간언어는 Selinker(1972)가 처음 언급한 심리언어적 표현으로, 모국어나 외국어에 속해 있지 않고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생 시킨 내면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중간언어라는 표현은 아래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제2언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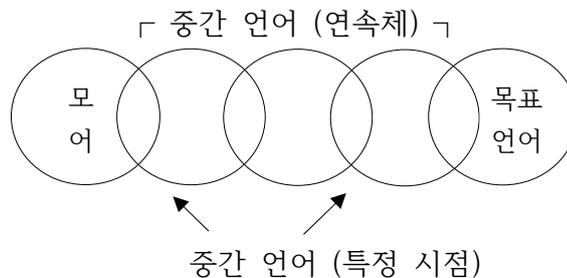
<표 7> 연구자 별 ‘중간 언어’ 설명

연구자	정의
McLaughlin (1987)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도달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일시적인 문법
Selinker (1972)	목표 언어나 모국어와는 다른 학습자 특유의 언어 체계
Spolsky (1989)	제2언어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
Stern (1983)	그 자체로 고유한 특징과 규칙을 지닌 개별언어의 체계

이중 Selinker(1972)는 중간언어를 모국어 구조도 아니고 학습하는 외국어 구조도 아니며 양쪽 언어의 중간에 위치하는 별개의 언어로 정의했다. 따라서 중간 언어는 모국어와 L2언어의 양쪽 특징을 가지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중간언어는 학습자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순 구조로서 학습자 나름 생성한 내면의 L2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오류를 범하며 외국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구축하는데 그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가 중간언어인 것이다.

중간 언어는 습득 수준에 맞추어 변해가는 체계이므로 모국어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 언어에 근접해 가는 여러 단계 가운데 특정 시점의 언어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와 그 연속체로서 언어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이덕배, 2010). <그림 1>은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 중간 언어의 두 가지 의미



중간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중간 언어의 특징과 그 원인이라는 두 가지 면에 대해 분석을 하면, 아래의 제시된 중간 언어의 특징을 가진다(Ellis, 1985).

- (33) a. 중간 언어는 체계가 있다.
- b. 중간 언어는 새로운 형식과 규칙을 적용하여 수정되고 발달한다.
- c. 중간 언어는 동일한 개인 학습자의 동일한 시기에도 다른 형식이 존재한다.
- d. 중간 언어 발달 과정에서 고질화(fossilization)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특징 가운데 고질화(fossilization)는 중간 언어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고질화는 ‘화석화’라고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어떤 언어의 발음이나 억양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 등 모든 언어 요소에 있어서 학습을 반복해도 중간언어에서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말한다. 즉, 확실히 극복했다고 생각한 오류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화자에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고질화와 같은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심리언어적으로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로 모국어의 오류의 원인을 가지는 경우를 언어전이 오류라 하고 두 번째, 학습의 훈련 방법에 오류의 원인이 있는 경우, 훈련 전이라 한다. 세 번째, 학습자가 L2 언어를 단순화 시키며 발생하는 오류를 L2의 학습 전략 오류라 한다 (e.g., “Don’ t worry, I’ m hearing him” 과 같이 지각동사를 현재진행형으로 취급하는 경우). 네 번째,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표현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 취하는 태도나 말로 인한 오류로 L2의 의사소통 전략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L2 언어의 규칙을 다른 말에도 적용하여 생기는 오류로 목표 언어의 과잉 일반화 원인이 있다(Selinker, 1972).

고질화 현상의 또 다른 발생 조건은 정서와 관련된 여과장치(filter)가 강할 때와 입력(input)이 약할 때의 경우가 있다. 언급된 여과장치는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에 불만을 가지거나 의지를 상실하거나 학습동기가 약할 때 가지는 정서적 요소를 일컬으며, 입력의 부족은 충분한 학습 내용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뜻한다(Krashen, 1983).

이와 같이 중간언어의 이론은 모국어의 부정적인 언어 전이 현상으로 비롯된

오류만을 강조했던 분석에서 벗어나 언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오류의 관점을 넓혔다. Richards(1971)는 모국어에서 일어나는 오류 외 다른 언어내의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Taylor(1975)는 모국어 전이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와 언어내의 오류를 비교 연구하였고 언어내의 오류가 외국어 습득 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했다. 또한 L2 언어 학습 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모국어의 구조가 아닌 L2 언어의 구조라고 주장했다 (Dulay & Burt, 1974).

이러한 언어 전이 현상 특징 및 중간언어 특징으로 본 논문의 연구 실행 시 발생하는 부사절 위치 양상의 상이점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L2 언어인 영어를 습득 할 시 발생하는 언어 전이현상과 중간언어 생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부사절 언어 구조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어 부사절 구조에 대한 교육 방향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전이 현상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과연 영어 능숙도에 따라 언어 전이 현상이 달라지며 이는 부사절의 위치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 의문을 해결하며 각각의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에 따라 알맞은 수준의 영어 교육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2.5 관련주제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L2 언어인 영어 ‘when,’ ‘if,’ ‘because’ 부사절 사용 시 나타나는 부사절 위치 양상을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부사절 사용 위치 양상과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하며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 연구는 본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난 언어 간 부사절 위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부사절의 위치는 1) 주절 + 부사절, 2) 부사절 + 주절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Diessel(2001,2005)은 영어는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가 유연한 유

연식 ADV-S/VP + S/VP-ADV 언어로 구분하였고 한국어는 부사절이 흔히 주절을 후행하는 형식인 연식 ADV-S/VP 언어로 구분 하였다.

또한 Diessel(2001)은 SOV언어와 SVO언어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였다. SVO언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 및 후행하지만 후행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SOV언어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SVO언어에는 대표적으로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이 속해있고 SOV언어에는 한국어, 일본어 등이 속해있다. SVO언어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는 부사절의 문두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SOV언어에서 종속접속사는 부사절의 문미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사절은 크게 시간, 조건, 결과, 원인, 목적 부사절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Quir et al., 1985), 많은 연구는 시간, 조건, 원인 부사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Diessel(2005)은 영어 내에서 부사절의 위치 변화 원인은 경쟁적 동기(competing motivations)에 의해 발생하며 그들은 정보 처리, 담화 화용론, 의미론 관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Hawkins(1990)는 정보 처리 관점에서 부사절의 위치는 부사절이 길수록 주절을 후행할 확률이 높고 기 부사절이 짧을수록 인식 영역이 짧아지고 복잡한 문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부사절(final-adverbial clauses)은 짧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길이가 더 긴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사절의 위치를 정보 순서를 따르는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 기술했다.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 할 경우 주절은 부사절에 추가되는 정보를 설명 할 것이고, 부사절이 주절을 뒤따르는 경우 부사절이 주절을 수식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간 순서를 따르는 도상성 이론은 의미론 관점에서 서술하였는데, 시간 흐름의 순서에 따라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그에 반해 한국어는 위에서 주장한 부사절 위치에 관한 여러 관점을 따르지 않는다. 한국어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한다는 한가지의 순서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롭다(권수옥, 2008). 다만 한국어는 부사절의 끝에 위치하는 부사형 연결어미에 따라 부사절의 의미가 달라진다(남기심, 1993).

이러한 차이점으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이미 모국어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학습할 시 부사절의 위치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발생하는 오류와 차이점의 유형은 한국인 EFL 학습자가 L2 언어인 영어를 배울 때 선행어 구조인 영어에 대한 정보가 습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에 의존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혜령(2000)은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가지는 습득 과정에 관련해 L2 습득 과정이 모국어 습득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기성(2011)은 정보의 흐름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담화 내용에서 정보의 시간 순서는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에 영향을 끼친다. 즉, 부사절 + 주절 순서는 부사절이 주절보다 이전에 일어난 구정보를 포함하며 주절은 부사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신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권수옥(2008)은 영어 화자 코퍼스 Brown corpus와 LOCNESS¹⁰⁾, 그리고 한국인 EFL 학습자의 NICKLE¹¹⁾를 토대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주절과 부사절 순서를 분석했다. 'if', 'when', 'because'가 부사절의 기준이었다. 그 결과, 영어 화자의 부사절 선행 비율보다 한국인 EFL 학습자의 부사절이 더 선행했다.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순서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모국어(한국어) 전이 현상이 그대로 영어의 주절과 부사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박기성(2011)의 부사절 순서화의 요인은 정보 흐름의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는 화용론적 주장과는 달리 한가지의 어순 패턴(부사절+주절)을 가지는 한국어의 어순이 영작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가지는 오류 및 어려움의 원인은 모국어 전이 현상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한 한국인 EFL 학습자의 영어 부사절에 대한 연구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에 기반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거기서 비롯되는 차이점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본고는 두 가지 언어의 부사절과 주절 위치 변화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부사절 위치에 초점을 둔 Diessel의 연구와 한국어 어순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로 작문을 할 때 부사절의 위치 변화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영어 습득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영어

10) LOCKNESS : Louvain Corpus of Native English Essays

11) NICKLE : Neungyule Interlanguage Corpus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능숙도가 높은 한국인 학습자들은 외국어 습득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영어 어순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세한 이유들을 설명한다면 L2 언어 학습자들의 외국어 습득 단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간의 어순 차이에 대한 정보와 영어 모국어 화자 정도의 영어구사능력을 목표로 하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에게 성공적인 교육방향으로 이끄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분석 방법으로 다루었던 코퍼스 방식과는 다르게 실험자들에게 시각적인 영상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접속사를 사용해 작문하게 할 것이다. 영상 자료를 통해 실험자들은 영상 내용의 시간 흐름을 쉽게 파악 할 수 있고 L2 학습을 통한 학습 효과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면 자료보다 학습 효과에 치우치지 않은 주관적인 의견을 좀 더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자연적 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데이터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 시 모국어의 어순이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실험자들의 영어 능숙도(English proficiency) 테스트를 실행하여 영어 능숙도와 부사절의 위치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보여줄 한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접속사에 따른 부사절의 위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부사절 위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Diessel(2001; 2005; 2008; 2011)의 연구 그리고 영어 화자의 코퍼스 결과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코퍼스 결과를 통해 부사절 위치 차이를 분석한 권수옥(2008)의 연구 등 기존의 연구들과는 큰 차이점을 가질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코퍼스 결과 분석이 아닌 실험을 통한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으로 실험자들의 자연적인 발화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 사용 시 부사절 위치 변화는 모국어의 어순을 따라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운다. 또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부사절 위치 변화 원인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영어 화자의 부사절 위치 변화 원인을 분석한 Diessel(2001)의 연구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Diessel은 영어 화자의 부사절 위치 변화에는 종속접속사 의미별로 크게 정보 처리, 담화 화용론 그리고 의미론을 원인으로

주장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원인들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접속사 별 부사절 위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Diessel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 또한 영어 접속사 사용 시 영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접속사 의미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이는 모국어의 영향을 넘어 하나의 큰 언어 체계라는 틀에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크게 영어 화자와 한국인 EFL 학습자의 부사절 위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Diessel의 주장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부사절 위치 변화 원인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와 영어 부사절 사용 위치의 관계성을 연구하여 현재 영어 부사절 교육 과정에 대한 알맞은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능숙도가 높을수록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경향이 높다는 본 고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이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 부사절 습득에 있어 각 능숙도에 알맞은 영어 교육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20세 이상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15일 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인 학생들은 모국어가 한국어 이며 외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필수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으로 한국에서 제 2외국어(영어) 학습 과정에 노출된 상태이다.

3.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승인날짜 2018년 10월 04일), 피험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EFL 학습자가 ‘when’, ‘if’, ‘because’을 이용하며 문장을 만들 때, 부사절의 위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의 문장 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이 짧은 동영상을 보고난 후 동영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특정 접속사를 제시하여, 피험자들의 문장 산출에 반드시 해당 접속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 2>는 실제 실험 영상의 캡처본이다.

<그림 2> 실험 영상 캡처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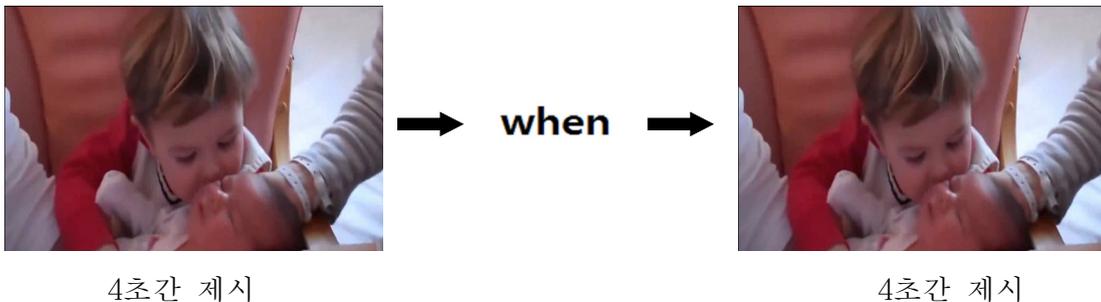
<그림 2>의 영상에서는 아이가 신생아 볼에 키스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피험자들은 이 영상을 4초간 시청 후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특정 단어를 제시받는다.

<그림 3> 실험 단어 제시 영상 캡처본



이러한 특정 단어를 제시 받고 피험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의 내용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그림 2>의 실험 영상을 한번 더 반복하여 제시한다. 이와 같이 실험이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실험 진행 순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영상은 자동으로 멈추고 그때 피험자들은 실험 진행 전에 배포 받은 실험지에 영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글로 묘사한다.

본 실험에서는 총 18개의 동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설계했다. 동영상의 출처는 유튜브(youtube.com)이며 출처 주소는 부록에 첨가되었다. 동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접속사를 세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즉, 각 하나의 동영상마다 'when', 'if', 'because'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제시되는 접속사는 세 블록으로 피험자와 실험문장 별로 라틴스퀘어(latin-squared)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순서가 동등하게 배분되도록 역균등화(counterbalanced) 하였다. 라틴스퀘어 방법이란 실험설계에서 사전에 검정할 두 요인(본 실험에서는 실험 영상과 접속사)을 하나는 세로축, 다른 하나는 가로축으로 실험 처치의 수만큼 설정하고 세로축과 가로축 안에서 각 처치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각 처치가 세로축과 가로축에서 단 한번씩만 나타나게 하는 설계이다. 따라서 한 피험자는 접속사의 모든 조건을 각기 다른 문항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 5>는 이러한 실험 설계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5> 표준형 라틴스퀘어 방법의 예

2x2	3x3	4x4	5x5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10px;">A B</td><td style="padding: 2px 10px;">B A</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B A</td><td style="padding: 2px 10px;">A B</td></tr> </table>	A B	B A	B A	A B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10px;">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A B</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B C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C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A</td></tr> </table>	A B C	B C A	C A B	B C A	C A B	A B C	C A B	A B C	B C A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A B C</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C D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A</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D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A B</td></tr> </table>	A B C D	B C D A	C D A B	D A B C	B C D A	C D A B	D A B C	A B C D	C D A B	D A B C	A B C D	B C D A	D A B C	A B C D	B C D A	C D A B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 E</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E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E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E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E A B C D</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E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E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E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E 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 E</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C D E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E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E 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 E</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E A</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D E A B C</td><td style="padding: 2px 10px;">E 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 E</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E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E A B</td></tr> <tr><td style="padding: 2px 10px;">E A B C D</td><td style="padding: 2px 10px;">A B C D E</td><td style="padding: 2px 10px;">B C D E A</td><td style="padding: 2px 10px;">C D E A B</td><td style="padding: 2px 10px;">D E A B C</td></tr> </table>	A B C D E	B C D E A	C D E A B	D E A B C	E A B C D	B C D E A	C D E A B	D E A B C	E A B C D	A B C D E	C D E A B	D E A B C	E A B C D	A B C D E	B C D E A	D E A B C	E A B C D	A B C D E	B C D E A	C D E A B	E A B C D	A B C D E	B C D E A	C D E A B	D E A B C
A B	B A																																																								
B A	A B																																																								
A B C	B C A	C A B																																																							
B C A	C A B	A B C																																																							
C A B	A B C	B C A																																																							
A B C D	B C D A	C D A B	D A B C																																																						
B C D A	C D A B	D A B C	A B C D																																																						
C D A B	D A B C	A B C D	B C D A																																																						
D A B C	A B C D	B C D A	C D A B																																																						
A B C D E	B C D E A	C D E A B	D E A B C	E A B C D																																																					
B C D E A	C D E A B	D E A B C	E A B C D	A B C D E																																																					
C D E A B	D E A B C	E A B C D	A B C D E	B C D E A																																																					
D E A B C	E A B C D	A B C D E	B C D E A	C D E A B																																																					
E A B C D	A B C D E	B C D E A	C D E A B	D E A B C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발췌하여 재생시간을 4초로 편집하였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케이크에 꽂혀진 초를 부는 장면, 동물을 보고 놀라는 아이의 장면, 가족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장면 등이 포함된다. 실험 참가자에게 심리적으로 무리가 되거나 충격을 주는 내용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험 동영상의 18개의 장면은 <부록 2>에 제시하였

다.

피험자들의 실험 의도 파악을 피하기 위해 27개의 채우기 자극(filler) 영상¹²⁾을 포함시켰다. 채우기 자극에는 본 연구의 주목적인 접속사를 제외한 기타 단어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so', 'I', 'and', 'but', 'can', 'friend', 'that', 'will', 'who', 'yesterday', 'not' 등 과 같은 단어들을 피험자들로 하여금 본 실험의 의도를 숨기고 실험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채우기 자극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한 피험자가 시청하는 동영상은 모두 45개이며 또한 산출해야 하는 문장도 총 45문장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결과는 실험 동영상 18개를 보고 산출한 18개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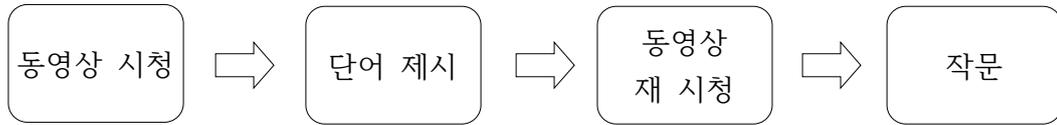
실험 제작을 위해 Psychop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Psychopy 프로그램은 실험 심리학을 위한 python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본 실험에서는 psychopy 1.90.1 version을 사용했다. 모든 동영상의 순서는 무작위로 순서로 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3.3 연구 절차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읽고 서명을 한 뒤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절차는 동영상이 4초간 재생된 후, 특정 단어가 2초간 화면에 나타나며, 그 후 같은 동영상이 다시 4초간 재생된다.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반복된 영상이 끝난 후 영상의 화면이 멈추면, 실험자는 앞에서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실험자가 답안 작성을 완료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다음 영상으로 넘긴다. 한 가지 동영상을 완료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이전 동영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림 6>에서 실험 절차를 참고하여 실험 순서를 알아보자.

12) 채우기자극(filler) 영상 : 피험자들이 실험 의도를 파악하여 의도된 결과값을 피하기 위한 재료가 주 실험(main experiment)에 주어지는 접속사 외 다른 단어를 제시하여 피험자는 주 실험 포함 접속사, 전치사, 부사 등 모든 환경을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그림 6> 실험 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실험에 앞서 두 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했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본 실험 시작 전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영어로 작문을 해야 하는 실험 특성 상, 참가자들의 영작에 대한 실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단어나 어휘가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며 쉬운 표현을 사용해 편하게 실험에 임하도록 격려했다. 실험 연구원이 실험에 대한 설명과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영어 부사절 구조의 직접적인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접속사’ 혹은 ‘부사절’의 단어 사용을 일체 삼갔다.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도중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을 시, 연구원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해 오류의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소요시간은 피험자 별로 달랐으나, 평균 60분-80분이 소요되었다.

동영상을 이용한 영어문장 생성 실험이 있고 난 후, 영어 능숙도에 따른 부사절의 위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의 영어능숙도를 점검하였다. 피험자들의 영어 능숙도는 Cambridge Online English test (<http://www.cambridgeenglish.org/test-your-english/general-english>)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 영어 시험은 5문항씩 5페이지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질문에 올바른 답을 체크하거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체크하는 형식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테스트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15분 이었다.

이와 같이 본 실험은 동영상 시청 후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묘사 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접속사 위치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IV.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4장에서는 본 실험에 사용된 각 접속사 'when', 'if', 'because' 의 위치 비율에 대한 결과를 나열하고 영어 화자와 한국인 EFL 학습자간 각 접속사 위치 변화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실험 결과는 'when', 'if', 'because' 부사절 언어 구조 형식에 대한 한국인 EFL 실험 참가자들의 관련 지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했다.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데이터 정리에 몇 가지 단계를 수행했다. 첫째, 실험 진행 중 예상되는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띄어쓰기, 철자 오류, '명사' 의 한글 사용, 대문자 사용 등은 오류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부사절을 포함한 복합문의 구조에 대해서만 집중 분석했다. 참가자가 잘 모르거나 빈칸으로 남긴 경우는 오답으로 간주하였지만 오류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둘째, 간혹 피험자들이 'because'를 'because of'로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1069개의 전체 데이터에서 3개인 0.28%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는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셋째, 영어 명사(구) 대신에 한국어 명사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데이터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또한 전체 데이터에서 한국어는 6개인 0.5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험자가 산출한 문장이 본 연구에서 의도한 접속사절을 포함한 복합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본 데이터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she swang her arm as if she knew her friend was coming', 'i don't know if they are friends', 'when will you teach me how to ride?', 'when will you love me?', 'when is your birthday?', 'when will they stop shadowing each other?', 'a tiger moved his hands as if he was a human', 'a baby was so surprised because he knew himself as if he broke top without touch'과 같은 경우는 'other'로 코딩하였으며 이는 전체 데이터의 0.74%(8개)에 해당되었다.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각 피험자별로 접속사절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다. 피험자가 산출한 복합문 중에서 접속사절이 뒤에 위치한 경우와 앞에 위치한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이를 접속사 별로 세부 분류하여, 해당 접속사가 주어

졌을 때, 접속사절을 뒤에 위치한 비율을 퍼센트 점수로 정리하였다. 데이터가 정리되는 방식의 예는 아래 <표 8>와 같다. 아래 <표 8>에서와 같이, 접속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위치한 경우에는 0이라고 표시하였고, 접속사절이 주절의 뒤를 따를 경우에는 1이라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산출한 복합 문장에서 접속사절을 후방에 위치시킨 경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데이터에 근접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분석하였다.

<표 8> 실험 데이터 정리 방식

subject	item	condition	output	coding
1	1	if	If I were that boy, i'd have done the same	0
1	3	because	The boy was shocked because his father broke the toy tower.	1
1	6	when	When the girl spilled the water, the woman jump	0

피험자들의 영어 능숙도는 Online English test(<http://www.cambridgeenglish.org/test-your-english/general-english>)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테스트는 25점을 만점으로 한 과제로서, 이 중 15점 이상에서 25점 이하의 점수는 ‘상’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14점 이하의 점수는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 집단에는 60명 중 34명이 해당되었고, 이들의 평균 점수는 17점(15점~22점)이었으며, ‘하’ 집단에는 나머지 26명이 해당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2점(9점~14점)이었다.

부사절 위치 비율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0)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2 영어 능숙도 (상, 하) x 3 접속사 유형 ('because', 'if', 'when')의 설계에 따른 이원 반복측정 혼합 ANOVA 모델을 시행하였고, 영어 능숙도 별 부사절 위치 변화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s)을 실시했다. 모든 분석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접속사별 부사절 순서 위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장에선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각 영어 접속사 위치비율에 대한 결과를 나열하여 접속사에 따른 주효과(main effect)에 대해 분석하였고 영어 수

준에 따른 접속사별 위치 변화에 대해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 분석을 하였다.

4.1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부사절 위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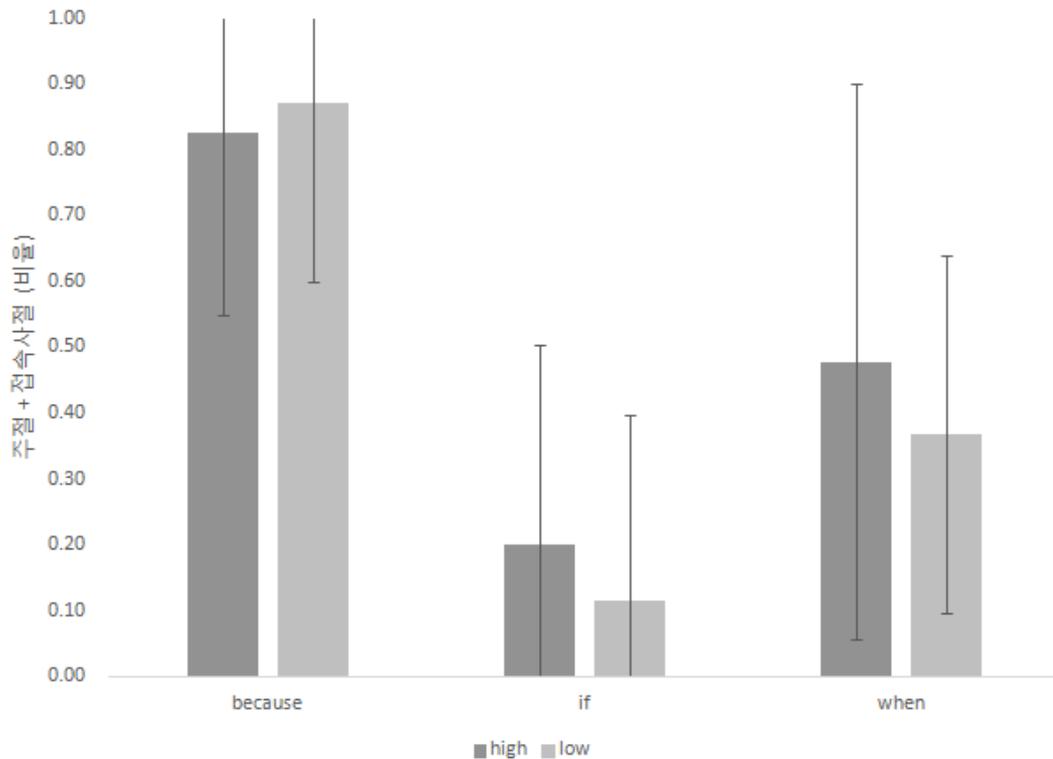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 별 ‘because’, ‘if’, ‘when’의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은 다음 <표 9>를 통해 요약적으로 수치화 하였고 그에 대한 설명을 <그림 3>과 함께 제시했다. <표 9>에서 영어 능숙도는 ‘level’로 표시하였으며 ‘상’은 영어 능숙도 점수가 15점 이상인 피험자들의 데이터 비율이고 ‘하’는 14점 이하인 피험자들의 데이터 비율을 나타냈다.

<표 9> 영어 수준에 따른 각 접속사별 부사절 후행 비율

conjunction \ level	상	하
because	0.82	0.87
if	0.20	0.11
when	0.47	0.36

<표 9>에서와 같이 피험자들은 ‘because’ 접속사를 사용했을 시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이 ‘상’ 집단과 ‘하’ 집단 모두 높았다. 그에 반해 ‘if’ 접속사 사용 시 ‘상’ 집단과 ‘하’ 집단 모두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접속사 ‘when’은 ‘상’ 집단은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이 0.47, ‘하’ 집단은 0.36으로 ‘because’와 ‘if’ 비율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접속사 모두 ‘상’, ‘하’ 집단 간 차이는 있지만 0.1 이상의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영어 복합절에서 부사절을 위치시키는데 영어 능숙도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7>은 <표 9>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 7> 영어 수준에 따른 각 접속사별 부사절 후행 비율 그래프



참고: 그래프에 사용된 에러 바는 피험자간 표준편차(standard erro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그림 7>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은 'because', 'when', 'if' 순서로 'because'절이 가장 후행을 많이 했으며 그 다음은 'when'절, 마지막으로 'if'절이 가장 적게 후행 한 것을 알 수 있다. '상' 집단을 'high'로 표기하였고 '하' 집단을 'low'로 표기했으며 'because' 절에서는 'low' 집단이 후행하는 비율이 수치상 더 높았으며, 'if'와 'when' 절은 'high' 집단이 후행하는 비율이 수치상 더 높았다. 하지만 <표 9>에서 설명했듯 수치상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혼합 ANOVA 모형의 결과도 위 <표 9>과 <그림 7>에서 보고한 빈도별 결과와 일치한다. 접속사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2,116) = 124.10, p < .001$), 영어 능숙도의 주효과는 없었다 ($F(1,58) = .64, p > .1$). 마찬가지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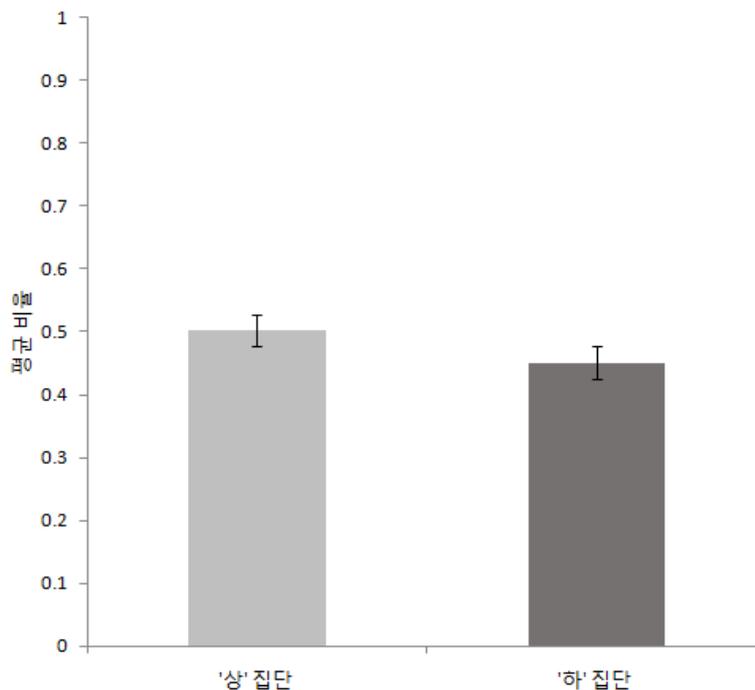
사 유형과 영어 능숙도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 하지 않았다 ($F(2,116) = 1.760$, $p > .1$).

영어 능숙도 변수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접속사에 상관없이 영어 수준별 주절이 부사절을 후행하는 비율은 다음 <표 10>과 <그림 8>와 같다.

<표 10> 영어 수준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 평균 비율

영어 수준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상	.502	.042	.417	.586
하	.451	.047	.358	.545

<그림 8> 영어 수준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 평균 비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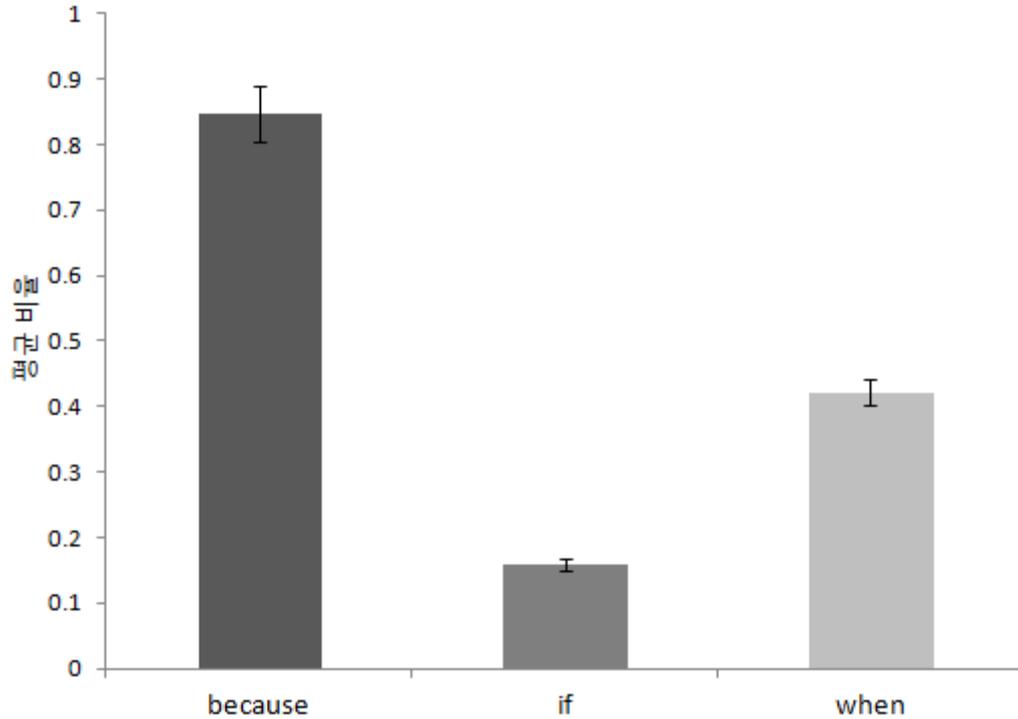
통계 자체 내에서는 유의확률($p=.426$)이 유의수준($\alpha, 0.05$)보다 크기 때문에 영어 수준 별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차이는 없다($F(1,58)=.64, p >.1$).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 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 따라서 어떤 접속사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에서 영어 능숙도에 따른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접속사에 따른 주효과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각 접속사에 따라 부사절의 주절의 후행 비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F(2,116)=124.1, p <.0001$). 즉, 접속사별 주절 후행 혹은 선행 비율이 다른 양상으로 존재했다. 아래의 <표 11>과 <그림 9>에 따라 접속사는 ‘because’, ‘when’, ‘if’ 순서대로 접속사를 이용한 부사절의 주절 후행 비율이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사절이 후행하는 비율은 because 접속사가 주어졌을 경우가 when 접속사가 주어졌을 경우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했으며 ($t(59) = 89.93, p >.001$), 이 차이는 because-if 사이에도 발견 된다 ($t(59) = 14.93, p >.001$). 그리고 if 접속사와 when 접속사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59) = -6.66, p >.001$).

<표 11> 접속사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 평균 비율

접속사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because	.848	.036	.777	.919
if	.159	.038	.083	.235
when	.422	.047	.328	.516

<그림 9> 접속사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 평균 비율 그래프



피험자의 영어 수준에 따른 부사절의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F(2,116)=1.76, p > .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어수준별 차이의 등장을 가설로 세웠기 때문에, 사후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양상을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데이터로 분리하여, 각 접속사별로 영어 능력 수준의 효과를 독립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각 접속사별로 피험자들의 영어 수준에 따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즉, *because* 접속사가 사용된 복합절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고 ($t(58)=-.619, p > .1$), 이는 *if* 접속사가 사용된 접속사절에서도 마찬가지이며 ($t(58)=1.117, p > .1$), *when* 접속사절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t(58)=1.175, p > .1$). 접속사별 영어 능력별 부사절이 후행하는 평균 데이터는 아래 <표 12>과 같다. 본 결과는 피험자들의 점수에 따라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이 다르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모든 접속사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12> 접속사별 영어 수준간 평균 비율

접속사	영어 수준	N	평균	표준편차
because	상	33	.82	.27
	하	27	.87	.27
if	상	33	.20	.30
	하	27	.11	.28
when	상	33	.47	.42
	하	27	.36	.27

요약하자면 각 요인들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부사절의 주절 후행에 대한 접속사 유형의 주효과는 존재했다($F(2,116)=124.1, p < .001$). 즉, 각각의 접속사별로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이 달랐다. 'because', 'when', 'if' 순서로 부사절이 주절을 후행했다. 하지만 부사절의 주절 후행이 피험자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F(1,58)=.644, p > .1$). '상' 집단과 '하' 집단의 평균은 각각 '상' 집단은 약 50%, '하' 집단은 약 46%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영어 수준에 따른 접속사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에 대한 주효과와 접속사에 따른 영어 수준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에 대한 주효과는 없었다($F(2,116)=1.76, p > .1$). 즉, 모든 데이터에서 영어 수준을 기준으로한 주효과는 없었으며 영어 수준을 제외한 접속사를 기준으로한 주효과는 명백했다.

v. 논의

20세 이상 한국인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실험 연구는 접속사에 따른 부사절의 주절 후행 양상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because'를 사용한 접속사는 후행비율이 높았고, 'if'를 사용한 접속사는 선행비율이 높았으며 'when'은 선행과 후행 비율이 비슷했다. 이에 반해 피험자들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부사절의 주절 후행 양상은 유의미 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영어 능숙도를 제외한 접속사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 비율을 따르면 'because', 'when', 'if'의 순서로 후행을 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관찰할 것이라는 본 연구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영어 복합문 작성 시 모국어의 언어 특수적 특성이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본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이 모국어의 전이를 받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만하다. 후자의 가능성 대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문장 작성 시 접속사의 의미적 유형 및 학습자의 사고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능성을 심도 깊게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한 추가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when', 'if', 'because' 접속사를 사용할 때 부사절이 항상 주절을 선행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요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인 EFL 학습자의 부사절 순서 위치는 Diessel의 일련의 연구에 따른 영어 화자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유사점뿐만 아니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Diessel은 영어 화자의 부사절 위치는 접속사의 의미적 유형과 정보처리, 담화적 화용론 그리고 의미론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Diessel과 Ford의 영어 화자 데이터에 따르면 'because'를 사용한 원인 부사절은 우분지의 특징으로 주로 주절을 후행하였고 주절의 진술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된다고 분석하였다. 접속사 'if'의 경우는 'because'와 달리 영어 복합문에서 가장 자주 주절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건으로 인식되는 'if' 조건 부사절은 진술을 포함하며 그 조건이 성사되었을 때

결과절 즉, 주절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접속사 'when' 또한 대부분 주절을 선행하며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도상성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영어의 양상들이 본 실험의 데이터에서도 일부 발견되었다. L1의 언어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모든 부사절은 주절을 선행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르게 본 실험에서 접속사 'because'를 사용한 부사절은 대부분 주절을 후행하였다. 그러나 접속사 'if'를 사용한 부사절은 대부분 주절이 선행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접속사 'when'을 사용한 부사절은 선행과 후행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이점도 영어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 접속사를 사용할 때 L1 언어인 한국어가 영어 복합문을 구성하는 데에 주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essel이 영어 화자의 정보처리 양상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화자들도 접속사의 의미적 유형과 정보처리, 담화적 화용론 그리고 의미론에 따라서 영어 부사절 위치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동기는 언어 특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각각의 접속사는 주절과 부사절 위치변화에 영향을 끼치는가?” 였다. 세 가지의 접속사별 주절의 선행 및 후행 비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접속사 'because'의 경우 본 실험에서는 주절+부사절의 순서가 특별히 더 자주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험자들이 사건 정보를 결과를 언급한 후 원인을 서술하는 순서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정보를 전달하는 본 실험 과제에 있어 부사절은 원인을 나타내고 주절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순서는 원인을 먼저 설명하고 결과를 나중에 언급하려는 한국어 어순의 특징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L2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여 인과 복합문 작성할 때, L1 언어인 한국어의 특수적인 특징과는 다르게 결과를 먼저 서술하고 그 뒤에 원인을 언급하는 순서가 더 설득력이 있는 문장의 순서라고 여겼으며, 따라서 결과문 즉,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을 선행시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Diessel의 주장

과 일치하는 점으로, 결과를 먼저 서술하고 부가적인 원인을 서술하는 영어 화자와 유사한 심리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접속사 'if'를 사용한 부사절의 경우 본 실험에서 'because'와는 다르게 대부분 주절을 선행하였다. 이는 'because' 절이 가지는 특징과는 다른 사고 전달 방식으로 조건문을 먼저 제시한 후 서술을 하는 양상을 띤다. 물론 한국어 L1의 영향으로 부사절+주절의 순서로 서술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L1의 영향을 배제한 언어전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선 조건 후 서술'이라는 논리적 사고에 의한 순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재고해 볼 수 있다. Diessel은 if-조건절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진술이며 주절의 근거를 제공하고 주절을 해석하기 위한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부사절보다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Diessel의 주장은 본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는데에도 매우 적합하다. 본 논문도 보편적 심리적 기제가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접속사 'when'의 경우 나머지 접속사 'because', 'if'와는 다르게 주절을 후행하는 확률이 영어 능숙도가 높은 집단은 48%, 영어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37%의 비율로, 두 집단 모두에서 미세한 차이로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떤 방향을 확연하게 선호하는 편향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은 지속되는 일정 기간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놓인 경우, 혹은 찰나의 순간과 같이 다양한 시간의 범위를 표현한다. 이런 when의 사용과 달리, Clark(1971)는 before-부사절과 after-부사절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며 특정한 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도상성 이론에 따라 before-부사절은 주절을 후행하는 빈도가 높고 after-부사절은 주절 앞에 위치하는 빈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즉, Clark의 주장을 근거로 하자면, 접속사 'when'은 before-부사절과 after-부사절과는 다르게 특정한 순서를 표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Diessel(2008)의 데이터를 따르면 영어 화자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접속사 'when'을 사용할 시 영어의 문장 순서인 주절+부사절과 부사절+주절의 선택권이 있지만 주절+부사절 순서를 선호한다. 하지만 본 실험의 한국인 EFL 학습자의 when-부사절의 위치 결과를 참고했을 때, 영어 능숙도가 높고, 낮은 두 집단 모두 부사절의 주절 선

행과 후행 비율이 비슷하고, when-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미세한 차이로 높았다. 이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 화자와 같이 when-부사절을 주절 앞에 위치시키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뜻하며, 이는 L1인 한국어 어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가 주절과 부사절 위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본 실험 피험자들의 영어 능숙도는 최저 9점부터 22점까지 다양했다. 15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점이 9명으로 많았으며 최고점인 22점은 1명이었다. 실험 분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사절의 주절 후행 분포는 각각 50%와 45%로 두 집단 모두 영어 능숙도와 부사절의 주절 후행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접속사별로 분석을 해도 결과는 같았다. ‘상’ 집단과 ‘하’ 집단이 접속사 ‘because’, ‘if’, ‘when’을 후행시킨 비율은 모두 비슷했으며 이로 인해 영어 능숙도와 접속사별 부사절의 주절 후행 효과는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부사절 위치 변화는 영어 능숙도의 차이가 아닌 L1의 영향과 접속사의 의미적 유형 및 학습자의 사고체계에 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보편적 사고 체계는 영어능숙도 별로 다를 이유가 없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영어능숙도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거나 피험자들의 수가 적어 실험 결과가 능숙도의 차이를 모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추후 피험자 수와 피험자 집단의 영어능숙도를 다양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관찰해 볼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실험과 실험의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영어 화자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주절 부사절 위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진행 중 나타난 한계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 보다 엄밀하게 통제 되어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는 바이다.

첫째, 부사절 위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의 다양화에 대한 실험 환경이 요구된다. Ford(1993), Ramsay(1987), Diessel(2001,2005,2008) 등 여러 학자들은 영어 화자들에 있어 부사절의 길이와 구정보, 신정보의 전달 그리고 주절과의 연관성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가 변화된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 EFL 학습자들 또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영어 복합문 작성 시 부사절의 위치가 변화되는

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부사절 위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충분한 피험자 수의 확보이다. 본 실험의 연구 결과 영어 능숙도와 접속사절 위치의 상관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영어 능숙도 점수 20점에서 25점 사이의 피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사절의 위치 변화를 분석하였지만 전체 데이터의 평균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점을 통해 피험자 집단에서 우수한 영어 능숙도를 가진 학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신혜원(2016)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능숙도가 낮을수록 부사절 습득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며 영어 능숙도와 부사절의 습득력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신혜원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203명으로 본 실험의 피험자 수에 3.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험에 앞서 충분한 피험자수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두 가지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실험 유형이 요구된다. 본 실험은 한국인 EFL 학습자의 영어를 사용한 작문 실험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 EFL 학습자가 L2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 부사절의 위치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결론을 짓기에 영어 ‘작문’이라는 편향된 실험 방법을 고수하였다. 신혜원은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가지는 영어 시간 부사절 습득의 어려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는 실험 방법으로 한국인 EFL 학습자들에게 영어 문장을 제공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즉, 영어 복합문을 한글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주절+부사절과 부사절+주절 중 어떤 문장 순서에 익숙하고 또는 어려움을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후속 연구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비교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즉, A언어와 B언어의 차이를 비교할시 A언어 화자와 B언어 화자 모두 동일한 실험에 참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두 가지 언어 화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실험을 통해 더욱 극대화된 차이와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I.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인 EFL 학습자의 영어 복합문 사용할 때 접속사 'when', 'if', 'because'를 사용한 부사절의 위치 양상을 파악하고 위치 변화의 원인을 언어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L2언어(영어) 사용시 L1(한국어)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한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각 자료를 사용한 영어 복합문 작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접속사 'when', 'if', 'because' 각각의 세 가지 접속사를 사용한 부사절 모두 주절을 반드시 선행하지는 않았다. 'if', 'when', 'because'의 순서로 주절을 선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because'의 경우 주절을 후행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각 접속사의 주절 후행 비율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각 접속사는 주절과 부사절 위치변화에 영향을 끼침을 입증하였고 그 원인은 접속사의 의미적 유형 그리고 화자의 언어 전달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험자들의 영어 능숙도를 검사하여 부사절의 위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영어 능숙도가 높을수록 부사절의 후행 비율이 높을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든 세 가지 접속사 데이터에서 영어 능숙도와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영어 능숙도가 낮을수록 모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부사절의 위치가 모국어의 양상에서처럼 대부분 선행할 것 이라는 가설, 즉 한국인 EFL 학습자 중 영어 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는 L2인 영어 보다 L1인 한국어의 어순에 크게 의지할 것이며 따라서 영어 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영어 문장을 서술 할 시 문장 구조는 한국어 어순과 같이 대부분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다. 또한 각 접속사를 사용한 부사절의 주절 선행과 후행 비율이 상이한 결과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L1의 영향을 받아 부사절의 위치 변화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그들의 영어 능숙도와 상관없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영향보다 각 접속사의 의미적 유형과 화자의 언어적 사고를 벗어난 언어전달의 영향으로 부사절과 주절을 위치시키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L2 학습의 목표가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한국인 EFL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충분히 영어 복합문의 부사절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부사절을 온전히 한국어 어순에만 따르지 않으며 유동성 있는 위치 변화를 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가지는 L2 학습의 어려움은 오직 부사절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외국어를 다루는 학습자의 인지심리적 부담감이 외국어의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코퍼스를 통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오류 사례 보고에 그친 기존 선행 연구와 다르게 실험을 통해 보다 주체적이고 직접적인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부사절 위치 변화 양상과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EFL 환경인 한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방법과 다르게 영어로 발화하고 작문하는 실험을 통해 L2 언어 사용시 화자들의 사고체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 앞으로의 외국어 습득 단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바 크다.

더 나아가 본 실험을 통해 앞으로의 L2 처리 연구에 있어서 언어적 관점 뿐만 아닌 심리언어적 관점으로 L2언어 습득 교육에 큰 영향을 주며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L2 언어 교육에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옥현. (1996).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모국어의 영향. 현대문법연구. 7, 1-15
- 김경민. (2014). 담화문을 통해 살펴본 접속사 *because*와 *for*의 비교분석-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논문.
- 김효성. (2011). 접속사 *when*절의 번역유형과 어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논문.
- 박기성. (2011). 영어 부사절의 상대적 어순 선택의 의미 화용론. 언어학. 19, 53-70
- 신미정. (2016). 영어부사절의 효과적인 지도방안-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 (2012). 학국인 EFL 학습자의 영어 시간 부사절 습득 어려움 - *when, before, after* 부사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오치성. (2015). 영어 *when* 부사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한 연구. 언어학. 41, 241-256
- 이숙현, 송경안, 이기갑, 조경숙. (2004).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의 어순 비교 -부사어들과 부사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 5-14
- 이정원, 김숙희. (1989).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문법적 오류에 관한 분석. 外大 語文論集. 5, 53-67
- 임홍빈. (2007).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22. 53-120
- 전일호. (2002). 제 2언어 학습자를 위한 중간언어 연구. The Journal of KACELLS. 7(1), 191-205
- 정명우. (1998). 언어전이의 재검토(A New View on Language Transfer). 교사 교육. 7, 1-10

- 조인정. (2005). 영한 번역의 어순 문제: 이유, 원인 부사절. *이중언어학*, 28, 355-369.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혜령. (2000). 한국인 EFL 학습자에게 있어서의 보편문법의 역할: 문법발달에 대한 연령별 종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Jung, B. & Lee, J. (2016). Transfer of L1 semantic and syntactic information in the acquisition of L2 transitive verbs.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27, 341-371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 Hall
- Clark, E. V. (1971). On the acquisition of the meaning of Before and After.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0, 266-275.
- Clark, E. V. (1975). *Knowledge, Context, and Strategy in the Acquisition of Meaning*. Georgetown University Press. 77-98.
- Diessel, H. (2001). The ordering distribution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A typological study. *Language*, 77(3), 433-455.
- Diessel, H. (2005). Competing motivations for the ordering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Linguistics*, 43(3), 449-470
- Diessel, H. (2006). Causal and conditional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19(3), 465-490
- Diessel, H. (2008) Iconicity of sequence: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positioning of temporal adverbial clauses in English. *Cognitive Linguistics*, 19(3), 465-490.
- Ford, C. (1993). *Grammar in Interaction: Adverbial Clauses i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h, J. (2009).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of Prator's Hierarchy of L2 learning difficulty in relation to segment-level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agendas for adult EFL learners. *Lingua Humanitatis*, 11(1), 103-126.

- Kim, J. H. (2010). L1 transfer in L2 relative clause attachment. *English Language & Linguistics*, 16(3), 116-134
- Krashen, S. (1997).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easy way. *Language Education Associates*.
- Kweon, S. (2004). Syntactic ambiguity resolution in L1 and L2 Korean: A study of relative clause attachment.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2), 1-19.
- Kweon, S. (2008).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Ordering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in Korean Learners of English.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4(1), 189-176
- Lee, S. (2016). L1 Influence on the processing of L2 collocation: An experimental study of Korean EFL learners. *Linguistic Research* 33(Special Edition), 137-163.
- Oh, E. (2011). L1-Transfer in the Acquisition of English Unaccusativity by Korean Speaker. *Language & Information*, 12, 197-221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1-231.
- Smith, H. L. (1958). Review: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Robert Lado. *Language*, 34(1), 93-98
- Thompson, S., & Longacre, R. (1985). Adverbial Clauses.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1-234.

부 록

<부록 1> 실험 영상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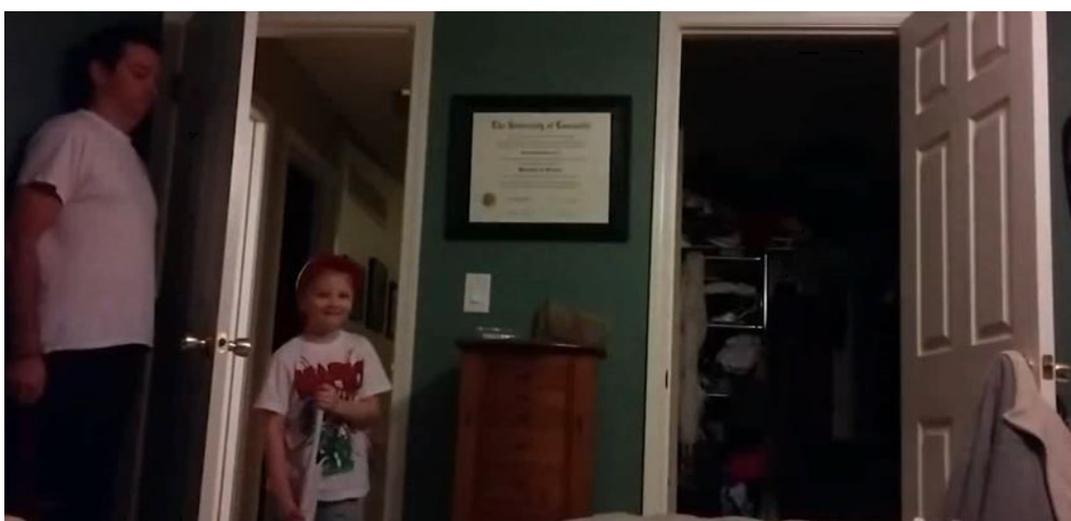
1. <https://www.youtube.com/watch?v=ynvmecumJMg>
2. https://www.youtube.com/watch?v=O00C_z856mg&t=114s&list=WL&index=6

<부록 2> 실제 실험 영상 캡처















<부록 3> 피험자 답안지 형식

피험자 No.

list No.

*code 0 : 부사절 선행/ 1 : 부사절 후행/ other : 그 외

item No.	main/filler	conjunction	답안	code 0/1/oth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부록 4> 영어 능숙도 테스트 출처

Cambridge English Test :

<http://www.cambridgeenglish.org/test-your-english/general-english>

<부록 5> 영어 능숙도 테스트 캡처본 예시

General English

Test your English

For the questions below, please choose the best option to complete the sentence or conversation.

Page 1 of 5

1 Can I park here?

Sorry, I did that.

It's the same place.

Only for half an hour.

2 What colour will you paint the children's bedroom?

I hope it was right.

We can't decide.

It wasn't very difficult.

3 I can't understand this email.

Would you like some help?

Don't you know?

I suppose you can.

Abstract

The Order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of English Complex Sentences Produced by Korean–English Learners: Focusing on *When*, *If* and *Because* Clauses

Kim, Yunhe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Yun, Hongoak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ositional changes of adverbial clauses when EFL Korean learners produced English complex sentences while focusing on the sentences of ‘when’, ‘if’ and ‘because’ conjunctions. 60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Jeju island, who were 20 or above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nglish sentences produced by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positional changes of adverbial clauses in English complex sentences (i.e., whether the adverbial clauses appeared before or after main clauses). During the experiment, the students were asked to watch short videos and write English complex sentences about the videos by using ‘when’, ‘if’ and ‘because’ conjunctions. I analyzed the sentence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do adverbial clauses always precede main clauses when EFL Korean learners use ‘when’, ‘if’ and ‘because’ conjunctions? Second, do the positional changes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differ by each type of conjunctions? Finally, do the positional changes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differ depending on th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revealed that the positional changes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differed among the sentences of ‘when’, ‘if’ and ‘because’ conjunctions. The complex sentences using ‘Because’ yielded the largest proportions of adverbial clauses following main clauses, whereas the sentences using ‘If’ yielded the smallest proportions of adverbial clauses following main claus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EFL Korean learners did not always place adverbial clauses ahead of main clauses. More importantly, some patterns were similar to the English patterns observ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ome patterns seemed to reflect the influences by the Korean native speakers’ tendency. As for the matter of th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the proportions to positioning adverbial-main clauses were about 50% observed in the advanced group and around 45% observed in the intermediate/lower group. There was main effect of th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In shor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order to acquire ‘when’, ‘if’ and ‘because’ adverbial clauses, diverse perspectiv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anguage-universal thinking system as well as the language-specific influences from mother language would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use of the second languag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from this experiment with linguistic and 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may present some guidelines to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